네트워크업계의 선두주자

(주)콤텍시스템

대표이사 : 남 석 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3동 779-10
연락처 : 대표전화 (02)3289-0114 / FAX : (02)636-6611
Home Page : http://www.comtec.co.kr

국내 정보통신시장의 태동기인 1983년에 설립된 ㈜콤텍시스템은 창조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인간, 정보, 기술이 하나되는 환경을 구축하여 인류를 위한 가치창출과 삶의 편익을 추구한다는 企業이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다.

企業이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콤텍시스템은 사람이 자산이다, 企業은 사람이다,라는 최고경영자의 마인드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투자가 남다르다. 현재 매달 2,4주째 토요일을 교육의 날로 정하고, 각종 기술교육 및 직능교육을 통해 그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업무와 관련된 외부교육을 수시로 시행하여 직원들의 업무기량을 최상위의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당사의 인적자원 관리는 곧 개인의 생산성을 최대화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업무별 팀제를 통해 업무위주의 경영조직을 정착화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 개인별, 팀별 업무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企業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콤텍시스템은 모뎀생산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창립 4년 후인 1987년 네트워크 장비를 수입하여 처음으로 서울은행에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후 국민은행, 철도청의 일부 은행인등에 참여하는 등 네트워크 업체로서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게 된다. 콤텍시스템은 초기에 은행에 시스템을 구축해 주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노하우로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 금융권의 네트워크 구축 의뢰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콤텍시스템이 무엇보다도 남달랐던 것은 금융관련업무에는 시스템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단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나면 직원을 상주하여 시스템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철저한 사후서비스를 지원했던 것이다. 그후 콤텍시스템은 금융권 네트워크 구축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당시 외산 장비가 주류를 이뤄 온 국내 네트워크 시장에 장비 국산화에 대한 의지를 품고 있던 당사는 1986년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자체 기술로 모뎀, 랜카드, 스위치, 허브, 라우터 등 수십여 종의 장비를 개발, 생산함으로써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의 선구적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주요개발 실적으로는 1991년 국내최초 원격제어기능 9600bps 전용회선 모뎀개발, 1993년 NMS (Network Management System) 개발, 1997년 56K모뎀, 12.1인치 TFT-LCD 모니터, Workgroup용/박스형 ATM LAN 스위치 개발, 1998년 금융수납장표 자동화 솔루션, 패스트 이더넷 허브, 1999년 10/100Mbps 인텔리전트 허브, Remote Access Router , 15.1인치 TFT-LCD 모니터, 디지털 화상감시시스템 (DVR), 10/100Mbps 패스트 이더넷 스위치 개발 등 많은 기술개발 실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콤비맥세스는 데이터와 음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LAN과 WAN을 통합하는 장비며, 프레임 릴레이, 전용선에도 별도의 장비교체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콤텍시스템은 지난 해 매출 1,409억 원, 당기순이익 69억 원으로 전년대비 매출액50%, 당기순이익 100%의 성과를 올린 정보통신분야의 유망한 중견기업이다. 또한, 1999년 미국 SSCAA사의 아비랑 구조조정기금 유치를 통해 무차입경영의 해로 선언한 이후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는 경영합리화를 통해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기업으로서 정보화와 관련해서 원활한 정보공유 및 정보시스템 처리를 위해 고속의 정보전산망을 구축하였으며, 완벽한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ERP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전자결재 시스템, 임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큼텍시스템의 주요 사업영역을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첫째는 네트워크 사업으로 창업 이래 쌓아온 풍부한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네트워크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권 분야에서는 70% 이상의 점유율로 그 우위를 인정받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네트워크 컨설팅, 설계, 설치, 유지보수 외에 허브, 스위치, 라우터, CSU, DSU와 같은 LAN/WAN장비 생산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사업의 급격한 발전 및 企業 및 정부의 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대한 관심 및 투자로 당사의 네트워크 사업도 급격한 매출 신장세를 이룩하였다. 당사는 이러한 확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기존의 금융권 영업 외에 공공기관, Telecom/ISP, 기업영업 분야에 지속적인 영업망을 확충할 계획이며 Telecom/ISP는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였다. 둘째는 시스템통합 사업으로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시스템 통합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유지시켜 주는 솔루션 개발이 주요 사업내용이다. 당사의 주요개발 솔루션으로는 금융분야의 수납 장표자동화솔루션, 금융통합 단말시스템, 인터넷 뱅킹, 국제금융관련 솔루션 등이 있으며, NMS/SMS 등과 함께 CTI 등 핵심 네트워크 관련 솔루션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세째는 전송사업으로 큼텍시스템은 광전송 데이터시스템 및 케이블 모뎀 등 광전송 장비를 이용한 인터넷, 음성, 데이터 통신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초고속 통신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장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 또한 이러한 시장 상황에 발맞춰 ADSL 장비 및 초고속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아파트 등 가입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광기업자 장비(FLC)를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네째는 정보기술 서비스 사업으로 400여 명의 네트워크 유지보수 요원이 전국적으로 6개 지사 14개 사무소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단위의 응급복구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업계 최고수준의 풍부한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 할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서비스로 고객의 욕구를 선도하고 있다.

다섯째는 유통사업으로 기존의 네트워크 사업, SI사업 및 전송사업 외에 주력사업으로 네트워크 장비, LCD 모니터, 기타 정보통신 주변기기 판매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큼텍시스템은 지난 해 Cisco와 SMB시장(중소시장) 마케팅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고 타 해외장비업체와의 지속적인 제휴를 통하여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우수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품을 당사의 유통부문을 통해 판매하여 큼텍시스템의 상품 브랜드를 독자적으로 개발, 홍보하는 전략을 통해 올해 매출목표 100억 원, 내년에 300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 큼텍시스템은 네트워크 장비, TFT-LCD모니터 등을 미국, 일본 , 동남아, 유럽 등 해외에 수출하여 세계시장으로 그 무대를 넓히고 있다.

지난 1995년에는 국내 최초로 뉴질랜드에 모뎀을 수출하였고, FCC,UL,CE 등 각종 인증마크를 획득하여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특히, TFT-LCD 모니터는 품질 및 성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업체로부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15.1인치(제품명 EYESYNC) 이외에 19.1인치도 개발완료와 함께 곧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사의 주요 사업다각화 전략은 첫째,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사업 영역에서 NMS/SMS, CTI 등을 포함하는 솔루션 사업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며 둘째, 보안시장 확대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STG SECURITY 라는 합작법인 투자를 통한 솔루션 제공 및 컨설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온라인 패스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ASP사업에 진출하며 넷째, 서비스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기술본부를 서비스 전문 企業으로 분사할 계획이며 다섯째, 기타 정보통신 유망 벤처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투자를 추진하는 것이다.

당사는 올해 공격적인 企業경영으로 자사 개발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며 네트워크솔루션 제공을 기반으로 한 종합정보통신 업체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IMT2000 사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인터넷 企業으로서의 변신을 꾀하며, R&D 투자확대를 통해 고부가치 장비를 개발하고, 정보통신분야의 유망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투자를 통해 2003년 매출 5,000억원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